

주희와 성리학의 성립

송나라의 새로운 유학을 집대성한 주자(朱子)



1 송대 신유학 탄생의 배경

조선시대에 주자학(朱子學) 또는 성리학(性理學)이라 불리는 학문은 중국 남송 시대의 사상가 주희(朱熹, 1130~1200)에 의해 완성된 유학(儒學)의 체계를 가리킨다. 춘추시대 공자(孔子)가 창시한 유학은 인간의 도덕성과 그 가치의 근원을 밝히고, 인간사회와 자연의 질서를 도덕의 원리를 통해 설명했던 실천적 학문 체계이다.

예컨대, 공자가 말한 ‘인(仁)’과 맹자(孟子)의 ‘사단지심(四端之心)’ 즉, 인(仁)·의(義)·예(禮)·지(智)는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한 도덕심이자, 도덕 실천의 자발적 근거들이다. 인간에게 인(仁)의 마음이 있기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하며, 형제·자매·친구와의 우애를 실천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자신의 도덕심을 ‘언제나’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이기적 욕망을 가진 인간은 때로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친구와의 신의를 저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유학의 중심 문제는 어떻게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적절히 통제해 이상적인 인격을 수양하고, 조화로운 질서의 체계를 만들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공·맹의 유학은 송대에 이르러 새로운 변화를 겪었다. 유교의 치국 이념을 표방한 송조(宋朝, 960~1279)는 유교 경전에 밝은 문인 사대부를 우대하며, 수많은 학자와 사상가들을 배출했다. 그들은 경전에 나온 글자의 뜻을 해석하는 훈고학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해석과 비판적 회의(懷疑)를 통해 새로운 유학을 탄생시켰다.

북송시대 주돈이(周敦頤, 1017~1072), 소옹(邵雍, 1011~1077), 장재(張載, 1020~1077), 정호(程顥, 1032~1085)·정이(程頤, 1033~1107) 형제 등 이른바 북송의 ‘다섯 스승’[五子]은 각자 서로 다른 학설을 통해 새로운 유학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존재와 그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유학에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했다. 즉, 태극(太極)·태허(太虛)·음양(陰陽)·오행(五行)·성명(性命)·성정(性情)·심성(心性)·이기(理氣)·체용(體用)·동정(動靜) 등의 단어들이 그것이다. 이런 개념들은 유학이 심성론(인성론), 존재론(형이상학), 수양론(실천방법론)을 포괄하는 보다 정밀한 이론체계를 갖게 하는데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이러한 유학의 새로운 변화는 위진(魏晉)과 당(唐)의 시대를 거치면서 매우 융성했던 불교와 도가철학이 인간과 만물의 존재에 대한 심오한 사상 체계를 갖춘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실제로 송대의 저명한 사상가들 대부분은 불교와 도가의 학설을 공부한 적이 있었으며, 주희 역시 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송 주희의 유학은 이렇게 북송 시대의 새로운 학문적 토양의 자양분을 흡수하며 탄생할 수 있었다.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북송의 멸망과 남송의 성립을 가져온 전란이 송대 사상계의 재편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1126년 북방 여진족의 금(金)은 북송의 도성 개봉(開封)을 함락하고 중원지역을 점령하면서, 송조의 황실은 회하(淮河) 이남의 강남지역으로 내몰렸다. 북송 때 여러

학파의 문인과 학자들도 남쪽으로 이주하면서, 동남 지역은 새로운 문화와 학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남송의 대유학자인 주희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했다.

2 주희의 학문적 성장 과정

주희의 자(字)는 그의 스승 유자휘(劉子翬)가 ‘원회(元晦)’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훗날에 주희는 ‘으뜸’ 원자 대신에 자신을 낮추어 ‘중회(仲晦)’라고 불렀다. 호(號)는 회암(晦庵)·회옹(晦翁)·운곡노인(雲谷老人) 등이다. 그의 본적은 휘주(徽州) 무원(婺源, 지금의 장시성에 속한 곳)이며, 부친 주송(朱松)이 푸젠성(福建省)에서 벼슬하면서 주희를 낳았다. 남송 고종대인 1130년(建炎 4), 푸젠성 요우시(尤溪)에서 태어난 주희는 오랫동안 송안(崇安)과 건양(建陽)에서 살면서 학문을 닦고 자신의 학설을 강의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의 학파를 푸젠 지역을 뜻하는 ‘민(閩)’자를 써서 ‘민학’이라고 불렀다.

주희는 유년 시절부터 매우 총명하고 영민했다. 하루는 그의 부친이 머리 위의 하늘을 가리키며 “저것이 하늘(天)이다”라고 말하자, 어린 주희는 “그럼, 하늘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다섯 살에 『효경』을 읽었고, 친구들과 모래사장에서 놀 때면 손가락으로 『주역』의 팔괘(八卦)를 그렸다. 유학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여덟 살에 『맹자』를 읽고, 열세 살에 『논어』까지 독파했다.

불행히도 부친 주송이 47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주희의 나이는 열네 살이었다. 주송은 임종하기 전에 오랜 친구인 호헌(胡憲)·유면지(劉勉之)·유자휘에게 자기 아들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주희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세 분은 나의 친구들이다. 그분들의 학문은 모두 깊은 근원이 있어서 내가 존경해 왔다. 나는 곧 죽으니 너는 가서 그분들을 아버지처럼 모셔라. 네가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실제로 주희는 이 세 학자들의 학문적·정신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특히 그 가운데 호헌을 통해 북송의 대유학자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속칭 二程)의 학문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 문하의 제자인 사랑좌(謝良佐)의 사상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 시절 주희의 학문적 관심은 매우 광범위했다. 그는 불교의 선학(禪學)과 도가(道家)의 학설에서부터 초사(楚辭), 시(詩), 병법(兵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 심취했다. 기록에 따르면 주희가 과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고향을 떠날 즈음, 그의 스승이 짐을 살펴보았더니 유일한 책 한 권이 발견되었는데, 뜻밖에도 선사(禪師)의 어록인 『대혜어록(大慧語錄)』이었다고 한다. 과거시험에 응시하려면 마땅히 유교 경전을 챙겨가야 하는데, 불교 선종의 책을 가지고 갔던 것이다. 이 일화는 주희가 불가와 도가의 학설을 흡수하고, 여러 유학의 학설을 집대성할 수 있었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주희는 19세의 나이로 과거시험에 급제했고, 그 후 천주(泉州) 동안현(同安縣)의 지방관으로 임명되었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가 유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동(李侗, 1093~1163)을 스승으로 삼으면서부터였다. 이동은 북송 이정(二程, 정호와 정이)의 제자 양시(楊時)와 나중언(羅從彦)의 학문을 계승한 인물로, 젊은 시절 주희의 학문 세계에 커다란 전환점을 제공해 주었다.

주희는 당시 자신의 독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17~18세부터 『맹자』를 읽었지만 20세가 되어서도 단지 글자의 뜻만을 이해했을 뿐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20세 이후에야 이렇게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본래 많은 문장들은 모두 시작과 끝이 서로를 관장하고 그 맥락이 서로 관통한다. 이런 점에 유념해 숙독하니 스스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맹자』를 다시 읽었더니 그 의미가 매우 명쾌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희는 더 이상 불교와 도가의 학설에 빠져들지 않고, 북송 시대에 일어났던 새로운 유학의 여러 학설들을 섭렵해갔다.

그는 평생 관직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황제의 부름을 받았지만, 매번 여러 이유를 들어 사양했다. 진사 급제 이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여 년간 타지에서 관직 생활을 한 것은 다섯 차례에 불과했고, 조정에 있었던 기간도 겨우 46일 정도였다. 그는 40

여 년의 세월을 책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보냈다. 어려서부터 집안이 가난했고, 관직 생활도 짧았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은 불가피했다. 각지에서 찾아와 배우려는 학생들은 스스로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고, 그의 밥상에는 늘 거친 현미밥이 놓였다. 하지만 일생동안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쁨이라면 저술과 강학이었다.

주희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네 권의 유교 경전을 ‘사서(四書)’로 엮고, 그 해석(주해) 작업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사서는 주희에 의해 오경(五經: 『시경』, 『서경』, 『예기』, 『주역』, 『춘추』)보다 더 중요한 경전으로 받아들여졌고, 그의 해석은 과거시험의 표준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주희의 『사서집주(四書集註)』는 군주는 물론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독서였으며, 시대를 대표했던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와 같은 학자들도 이 책의 해설을 기초로 삼아 조선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주희는 평생 동안 교육을 매우 중시했다.

“나는 소년 시절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늙어서까지 단 한 순간도 배우는 것을 지겨워한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피곤한 적이 없었다.”

이 회고처럼 주희는 자신이 머문 지역 곳곳에 서원(書院)을 정비해 학생들이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백록동(白鹿洞) 서원(지금의 장시성 심즈현 소재)과 악록(岳麓) 서원(지금의 후난성 창사시 웨루산 소재)은 그가 해당 지역의 지방관으로 재임했던 때에 중수된 대표적인 학교이다. 조선 중종 때인 1542년 당시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시대 주자학을 전한 안향(安珦)을 기리기 위해 세운 백운동(白雲洞) 서원(혹은 소수서원)도 바로 백록동 서원을 본받아 세운 곳이다.

서원마다 주희에게 배우려는 학생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는데, 그 수가 천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지역의 기록에 따르면 “학생들 각자 의문이 드는 것을 질문하고 함께 토론했는데, 모두가 피곤한 줄 몰랐다”고 전한다. 그가 이렇게 지방의 학교 교육에 열정을 쏟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오직 과거시험 합격에만 몰두하는 당시 교육의 병폐 때문이었다. 그는 “과거시험만을 위한 공부 는 사람의 지식과 견해를 오도하고, 올바른 마음의 씩씩이를 해친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제도는 사람을 너무 지치게 만든다. 그들 대부분 이 시험 때문에 탈진해 버린다”고 지적했다. 입신양명을 지향하는 지나친 입시교육이 인간의 참된 인격 수양과 학문적 성취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3 성리학의 집대성과 그 영향

1170년을 전후한 십여 년간의 시기는 주희의 집필 작업과 학술토론이 가장 활발한 때였다. 『정씨유서(程氏遺書)』(1169),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1172),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1173),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1173), 『근사록(近思錄)』(1174), 『논어집주(論語集注)』, 『맹자집주(孟子集注)』, 『주역본의(周易本義)』(1177) 등의 저서가 줄이어 완성되었다. 조선 성리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책들은 전근대 동아시아의 사상사·철학사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명저로 꼽힌다. 그의 저술은 오로지 홀로 자신을 독방에 가둬두고 붓을 들어 나온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상을 가진 학파들과 만나 교류하며 신유학의 여러 문제를 함께 토론했다.

1167년 가을, 그는 후난 창사(長沙)에서 호상(湖湘)학파의 학자 장식(張栻, 1133~1180)을 만나 『중용』과 『태극도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교류했다. 1175년에는 저장 우저우(婺州)의 금화학파 여조겸(呂祖謙, 1137~1181)과 『근사록』의 14개 주요 주제를 함께 논의하며 책을 구성했다. 특히 여조겸의 주선으로 심학(心學)의 대표 육구연(陸九淵, 1139~1193)을 만났는데, 이 만남이 유학의 역사에서 널리 알려진 ‘아호의 회동[鵲湖之會]’이다. 장시성 신저우(信州)에 있는 아호사(鵲湖寺)라는 사찰에서 열린 이 역사적 회동은 이른바 ‘성즉리(性卽理)’와 ‘심즉리(心卽理)’로 양분되는 유학의 두 학파 간의 학술 토론회였다.

주자학을 ‘성리학(性理學)’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성즉리’의 학설에서 따온 명칭으로, 통상 주희가 복송 이정의 학설을 계승·발전시켰기 때문에 ‘정주리학(程朱理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희의 이학과 육구연의 심학은 심(心)·성(性)·정(情)의 주요 개념과 관계를 서로 다르게 보았다. 만약 이것을 마음·본성·감정으로 번역해본다면, 주희의 학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의 마음은 어떤 대상과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사고의 주체이자 행위의 주재자이다. 또한 어떤 대

상과 상황에서부터 일어나는 기쁨(喜)·노여움(怒)·슬픔(哀)·두려움(懼)·좋아함(愛)·미워함(惡)·욕망함(欲) 같은 것이 감정이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하늘(天)이 정해 준 보편적인 본성이자 ‘이치(理, 원리)’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성품과 기질을 지녔다. 그래서 주희는 ‘본연(本然)의 성[천명(天命)의 성]과 ‘기질(氣質)의 성’을 구분했고, 여기에 보편적 원리로서의 ‘이(理)’와 현상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기(氣)’의 개념을 적용했다.

반면, 육구연의 심학에서 말하는 마음은 심리학적 개념이 아닌 순수한 ‘도덕심’(본심)이다. 본심은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지닌 것이기 때문에, 맹자의 말대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양지(良知)이며,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양능(良能)”이다. 도덕과 그 실천의 근거가 인간 자신에게 내재한 본심이며, 이것은 하늘이 준 ‘도덕성(性)’이다.

이렇게 두 학파의 학설이 갈라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맹의 사상과 경전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학과 심학의 분기는 비단 두 사람의 논쟁에서 그치지 않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대(大)명제로 이어졌다. 또한 주자학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관점을 가진 분파가 생겨났다.

조선시대에는 퇴계 이황(李滉, 1501~1570)과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이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문제를 두고 무려 8년 동안 서신을 통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인·의·예·지’라는 도덕심과 일곱 가지 감정의 근원을 이기론(理氣論)의 범주에서 그 관계를 밝히는 문제였다. 이후 성혼(成渾, 1535~1598)과 이이(李珥, 1536~1584)도 이 문제를 토론할 정도로 조선 성리학의 주요 쟁점이기도 했다. 이는 동시에 도덕의 원리를 중시하는 주리론(主理論)과 보편적 자연 원리를 중시하는 주기론(主氣論)으로 나뉘었다. 전자는 영남학파인 이언적·이황·유성룡·김성일 등이 의해 계승되었고, 후자는 기호학파인 서경덕·김인후·기대승·성혼·이이로 이어졌다. 이렇게 주자학은 조선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상과 정치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

주희의 말년은 순탄치 못했다.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긴 많은 사상가들이 온갖 고초를 겪은 것처럼 그도 예상치 못한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1194년 남송의 황제 영종(寧宗)이 즉위하고, 재상 조여우(趙汝愚)의 추천으로 주희는 환장각(煥章閣) 대제(待制) 겸 시강(侍講)에 임명되었다. 명망 높은 학자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주희는 사양하지 않았다. 65세의 나이에 이른 그가 이 자리를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황제를 설득해 교육과 학문의 풍토를 혁신하려는 목적이었다.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이상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정 대신 조여우와 권신 한탁주(韓侂胄) 사이에 벌어진 당쟁은 주희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이 정치적 암투로 조여우가 파직되고 유배를 떠나게 되면서, 주희까지도 그 일당으로 몰려 관직을 박탈당했다. 1196년 황제의 신임을 얻은 한탁주는 주희를 ‘가짜 학문(僞學)’의 우두머리로 선언하고, 그가 해설한 경전을 모두 금서(禁書)로 지정했다. 심지어 위당·역당의 명단에 주희의 지인과 제자까지도 그 이름이 올랐고, 그들의 모든 출사의 길이 막혀버렸다. 학문을 생명처럼 여긴 주희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199년 주희는 제자 괩우인(郭友仁)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지금은 갈 수 없는) 중원에 가보고 싶지만, 이제는 늙어 늦은 것 같구나!” 주희의 학문에 대한 금지령은 점차 완화되었지만, 그의 처지는 여전히 열악했다. 노년의 나이에도 죽림정사(竹林精舍)에서 황간(黃幹)과 진순(陳淳) 등을 만나 유학에 대해 토론하고 그들의 저술을 고쳐주었다. 1200년(남송 경원 6) 음력 3월 9일, 지병과 싸운 주희는 세상을 떠났다. 임종 전 그는 황간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추구한 진리(道)는 여기까지이니, 나는 여한이 없다.”

송·원 시기 학술사상의 계통을 기록한 『송원학안(宋元學案)』에 따르면, 주희의 제자로 이름을 남긴 사람만 467명에 달한다. 사숙(私淑) 21명을 포함한다면 모두 488명이다. 이는 유학이 공식적인 학문으로 인정받은 한대(漢代)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이다. 조선시대에도 주자를 배향한 사당과 서원이 다수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사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